

관광홍보·특산품 판매 등

‘진도 휴게소 개장’

진도대교 인근...편의점 등 편의시설 갖춰



보배섬 진도군의 입구에 진도 휴게소가 개장했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 진도대교 인근 1,863㎡ 면적에 지상 1층

규모로 편의점과 스낵바, 주차장, 화장실 등을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난 26일 개장했다.

진도 휴게소에는 지역의 농수특산물 등 100여개 품목을 상시 판

매·전시·홍보하는 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문을 열었다.

또 스낵바에서는 진도군 특산품을 활용한 전복전, 울금 떡볶이 등의 분식류도 저렴하게 판매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진도 휴게소 개장을 통해 군의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공직자 2명이 직접 상주하면서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까지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진도 휴게소 개장으로 농수특산물 판매·전시·홍보와 함께 관광 안내 홍보까지 실시해 보배섬 진도 방문을 위한 관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유해환경 OUT’ 함평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함평군이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청 주

민복지실,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은 최근 읍내 지역 상가와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날 10여 명의 민·관 합동 지도팀은 학교 인근 곳곳에서 건전한 학교생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업소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행위에 관한 홍보전단지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꼭 단순한 학교생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강진군, 귀농귀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성료

강진군은 지난 16일부터 26일 까지 귀농귀촌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귀농귀촌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진군에 1,400가구 3,400여 명이 귀농하여 강진 농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귀촌 인구를 포함하면 강진군 인구의 20% 인구의 주민이 귀농귀촌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생활에 익숙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마을 정서에 녹아들기 까지는 여러 가지 견해차이와 생활습관이 있고, 조용한 농촌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면 간혹 인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귀농귀촌인과 정주민간 갈등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교육 운영비 1천만 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이 많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상상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융화 교육을 실시했다.

도안면 월하마을을 윤치정 이장은 "우리 마을은 수년 전부터 젊은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마을에 활기가 되살아 나고, 빈집 등이 사라지고 새 집이 들어 서면서 마을 환경 또한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마을 앞 농장 운영을 맡아 줄 이웃까지 생겨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과수 외래해충 적기 방제 홍보활동 강화

영암군은 최근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기방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를 주는 해충은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이다. 이들 해충은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최근 4~5년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해충은 과수·산림의 줄기, 잎, 과실 등을 흡즙해 반점, 황화, 낙엽화하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가지 내부에 알을 낳고 양수분의 이동을 막아 심할 경우 열매가지가 말라죽어 다음해 과실이 열리지 않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주로 피해를 주는 과수는 감, 매실, 포도 등이고, 산림은 대

부분이 기주식물이다.

적용약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맞는 약제를 안전기준에 맞게 살포하면 된다.

영암군 주산작목인 감의 경우 외래해충방제약제와 기존 해충인 감꼭지나방, 노린재, 깍지벌레와 방제약제가 대부분 겹쳐 별도의 약제구입을 하지 않고 기존 적용약제로도 방제가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 흑산 대둔도 공영 버스 운행 개시

흑산군도 중에서 단연 높은 언덕을 지녔다하여 불리어진 전복과 우럭의 고장이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대둔도, 3개 마을(수리·오리·도목)에 공영(1004) 버스 운행개시를 하였다.

신안군은 26일 대둔도 수리선착

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마을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둔도 공영버스 운행 개시 행사'를 가졌다.

대둔도 공영버스 운행은 지난 2009년 매화도를 시작으로 선도, 고이도, 병풍도, 반월도, 자라도

박지도, 가란도, 옥도에 이어 열 번째이다.

육지 나들이를 위해 약 1.5km를 걸어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대둔도 3개마을(수리·오리·도목) 400여 명의 주민들은 저렴한 요금(일반 1,000원, 65세 이상 무료)으로 편질방이나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게 반기고 있다.

완도군 미국 시장개척단, 750만불 수출계약 쾌거



해 양 수 산 부 와 완 도 군 이 주 최 하 고 수 협 중 앙 회 LA 센 터 와 사 단 법 인 한 국 전 복 수 출 협

사미전복영어조합법인(활전복, 전복 가공품), 하나물산, 흥일식품(이하 해조류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아들래(모링가 차) 총 9개 수출 업체이다.

완도군이 운영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선도적 해외 시장 판로 구축을 위해 해마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완도군 수산물 수출 주력 국가에 파견하며 업무협약(MOU) 및 수출계약과 함께 실질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인 거래가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30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완도산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 및 해조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 먹거리 해조류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발 빠른 판로 개척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유럽 해조류 수출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다.

완도군은 미국 진출의 선도적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26일 미국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미국 유통 관계자, 수산물 전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총 63건의 상담을 통해 업무협약 9건, 수출계약 8건, 수출 실적 750만불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두며, 완도군의 선도적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회가 주관한 이번 완도군 미국 LA 수출상담회에는 총 9곳의 완도군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현지 미국 바이어들과 1:1 열띤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자사의 주력 상품 및 신제품들을 소개하고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참가업체는 누리전복영어조합법인, 삼전복, 영진수산(이상 활전복), (주)완도사랑 S&F(전복만두), 해성인터내셔널(활광어), 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